

보도시점 2025. 12. 16.(화) 12:00 배포 2025. 12. 15.(월) 15:00

# 「청년 삶의 질 2025」 보고서 발간

-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통해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제시 -

담당 부서	국가통계연구원 정책통계연구팀	책임자	팀 장	박시내 (042-366-7130)
		담당자	사무관	심수진 (042-366-7133)



## 「청년 삶의 질 2025」 개요

-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에서는 청년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「청년 삶의 질 2025」 지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.
  - 생애주기 단계 중 청년\*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보고서로, 지표설계 과정을 거쳐 2025년 첫 발간하게 되었다.
    - \* 청년은 만 19~34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나, 지표에 따라 차이가 있음
  - 건강, 여가, 고용·임금, 신뢰·공정, 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\*로 구성되며, 이를 통해 청년의 삶이 어떠한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준다.
    - \*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별 출처가 다양하고, 작성 연도 및 주기가 상이함
- 동 보고서는 청년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증거 기반의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  - 청년층은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부모세대로부터 독립이 발생하는 시기로 생애사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시기이다.
  - 청년을 둘러싼 다차원의 영역에서 이행과 적응의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청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.
  - 청년 삶을 진단하고, 종합적인 관점에서 청년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.
- 올해 보고서에서는 ‘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웰빙’, ‘청년의 주관적 웰빙과 사회통합’과 관련된 두 편의 이슈분석을 포함한다.
  - (사회적 관계와 웰빙,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선임연구위원) OECD의 사회적 연결성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.
  - (사회통합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연구위원) 청년층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통찰을 얻기 위해 주관적 웰빙과 시민참여 및 포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.
- 김진 원장은 “동 보고서의 청년 삶의 질 측정 결과가 청년 삶과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,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.” 고 밝혔다.

□ (영역 구성) 청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는 거시적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인구학적 배경과 미시적 환경과 삶의 질을 반영하는 5개 차원 내면적 삶, 삶의 역량, 물질적 삶, 사회적 삶, 삶의 환경 총 12개 영역으로 구성된다.



□ (지표체계) 12개 영역 62개 지표, 기존 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영역별 지표 구성

영역	지표명	대상연령	영역	지표명	대상연령
인구학적 배경 (8)	청년 인구	19~34	소득·소비·자산 (5)	가구 중위소득	19~34
	청년 가구	20~34		가구부채 비율	19~34
	혼자 사는 청년 비율	20~34		상대적 빈곤율	19~34
	청년 인구 순이동	19~34		소득 만족도	19~34
	시도별 청년 인구	19~34		소비생활 만족도	19~34
	청년 혼인상태	20~34	가족공동체 (5)	사회적 교류	19~34
	초혼연령	-		사회적 지지	19~34
	첫 출산연령	-		외로움 경험률	19~39
건강 (6)	주관적 건강평가	19~34		대인관계 만족도	19~34
	신체활동 실천율	19~39		가족관계 만족도	19~34
	비만율	19~39	시민참여 (4)	선거투표율	19~34
	번아웃 경험률	19~34		정치활동 효능감	19~34
	우울감 경험률	19~39		자원봉사 참여율	19~34
	자살률	19~34		기부 참여율	19~34
	교육 (4)	고등교육기관 취학률	18~21	신뢰·공정 (5)	대인신뢰도
교육 이수율		25~34	기관신뢰도		19~39
직업계고 졸업 취업률 및 진학률		-	공정성 인식		19~39
대학 졸업 취업률		-	계층이동 가능성		19~34
여가 (5)	여가시간	20~39	주거 (5)		차별 경험률
	여가비용 충분도	20~39		1인당 주거면적	19~34
	문화여가시설 충분도	20~39		주택 이외의 거처	19~34
	여가생활 만족도	20~39		주택임대료 비율	19~34
	일(학업)-여가생활 균형	20~39		통근통학시간	19~34
고용·임금 (6)	고용률	15~34	안전 (5)	주거환경 만족도	19~34
	실업률	15~34		야간보행 불안 인식	19~34
	첫 취업 소요기간	15~29		범죄 불안 인식	19~34
	시간당 임금	19~34		강력범죄 피해율	21~40
	업무자율성 정도	19~34		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	19~39
	일자리 만족도	19~34	교제폭력 입건 건수	-	
			주관적 웰빙 (4)	삶의 만족도	19~34
				삶의 자율성 인식	19~34
				삶의 가치 인식	19~39
				미래실현 부정 인식	19~3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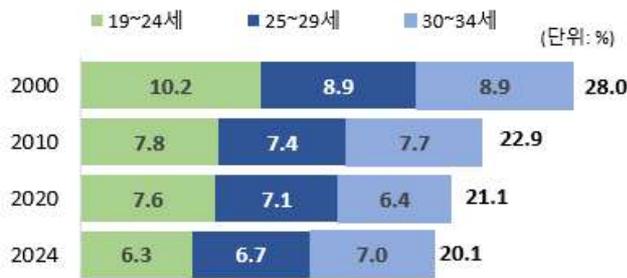
# 「청년 삶의 질 2025」 주요 결과

## 1. 인구학적 배경

청년(19~34세) 인구는 '24년 1,040만 4천 명, 전체 인구의 20.1%로 지속적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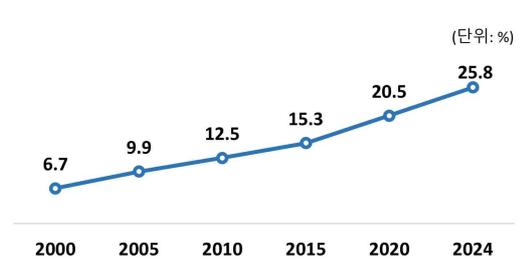
- 청년(19~34세) 인구는 '24년 1,040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.1%임(보고서 22쪽)
- 혼자 사는 청년의 비율은 '24년 25.8%로 '00년 6.7%에서 증가 추세

< 청년 인구 비율 (2000~2024) >



주: 총 인구 중 19~34세가 차지하는 비율  
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인구총조사」

< 혼자 사는 청년 비율 (2000~2024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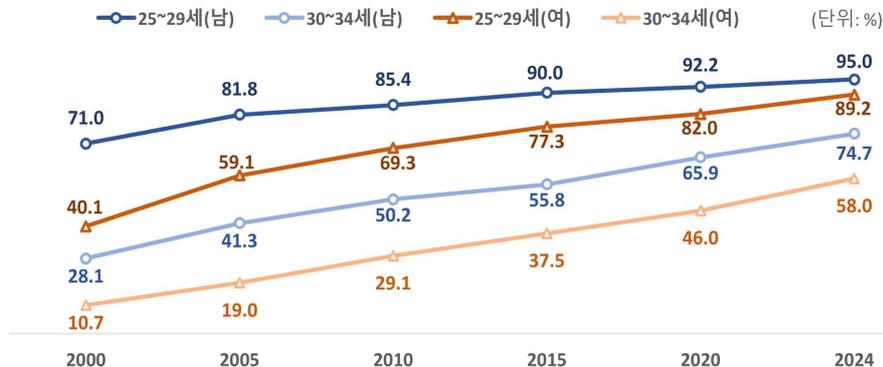


주: 1) (20~34세 1인 가구원 ÷ 20~34세 일반가구원) × 100  
2) 집단시설가구, 특별조사구, 외국인가구 제외한 일반가구임  
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인구총조사」

'24년 청년층 미혼율 30~34세(남 74.7%, 여 58.0%), 25~29세(남 95.0%, 여 89.2%)

- (30~34세) 남자의 미혼율은 '00년 28.1%에서 '24년 74.7%로 46.6%p 증가, 여자의 미혼율은 동 기간 10.7%에서 58.0%로 47.3%p 증가함(보고서 25쪽)
- (25~29세) 남자의 미혼율은 '00년 71.0%에서 '24년 95.0%로 24.0%p 증가, 여자의 미혼율은 동 기간 40.1%에서 89.2%로 49.1%p 증가함

< 25~34세 청년 미혼율 (2000~2024) >



주: (미혼 청년 수 ÷ 청년 인구수) × 100  
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인구총조사」

## 2. 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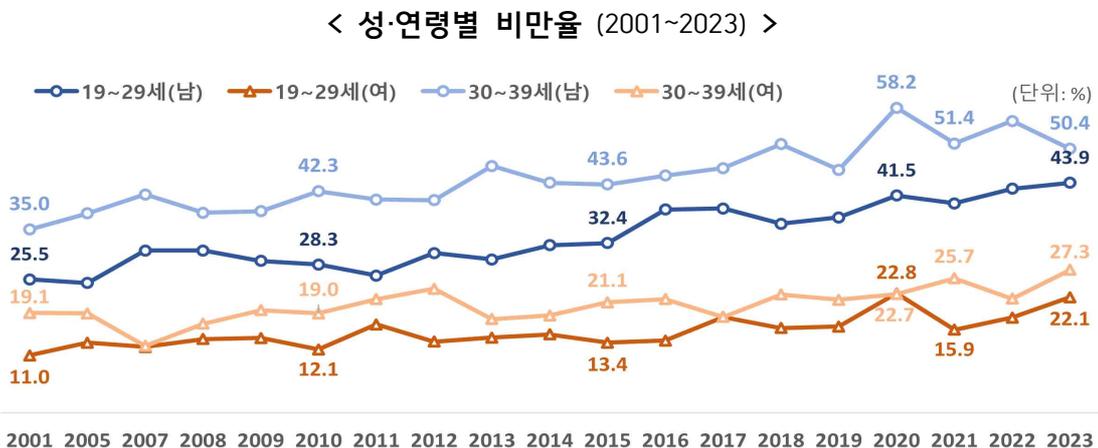
신체활동 실천율은 19~29세가 30대보다 높고, 비만율은 30대 남자가 가장 높음

- 신체활동 실천율은 '23년 19~29세 66.2%, 30~39세 58.0%로, 코로나19 시기인 '20년 각각 57.8%, 47.1%로 감소한 이후 증가 추세임(보고서 30쪽)
- '23년 기준 30~39세보다 19~29세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8.2%p 더 높음
- 19~29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69.6%, 여자 62.5%로 남자가 7.1%p 더 높고, 30~39세 역시 남자(62.1%)가 여자(53.6%)보다 8.5%p 더 높음



주: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(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에 해당)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비율  
출처: 질병관리청, 「국민건강영양조사」

- 청년(19~39세)의 비만율은 '23년 30~39세 남자가 50.4%로 가장 높음(보고서 31쪽)
- (19~29세) 남자 비만율은 '23년 43.9%로 '01년(25.5%) 대비 18.4%p 증가, 여자는 '23년 22.1%로 '01년(11.0%) 대비 11.1%p 증가
- (30~39세) 남자 비만율은 '23년 50.4%로 '01년(35.0%) 대비 15.4%p 증가, 여자는 '23년 27.3%로 '01년(19.1%) 대비 8.2%p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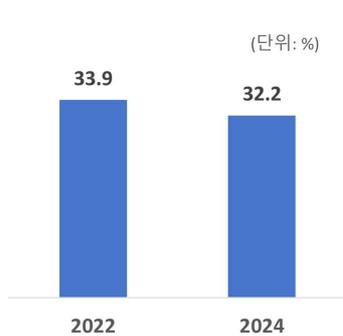


출처: 질병관리청, 「국민건강영양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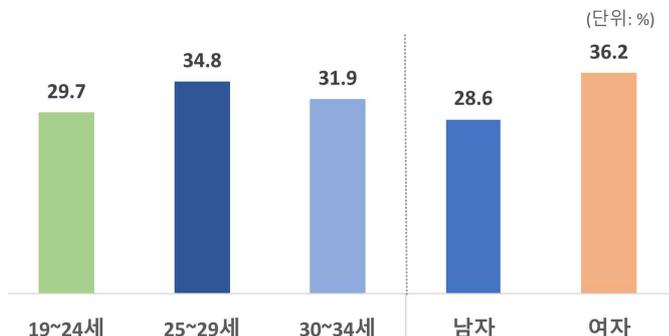
'24년 번아웃 경험률은 32.2%이며, 청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.4명임

- 정신적, 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'24년 32.2%로 10명 중 약 3명이 번아웃을 경험함(보고서 32쪽)
- 번아웃 경험률은 '22년 33.9%에서 '24년 32.2%로 감소함
- '24년 기준 남자(28.6%)보다 여자(36.2%)의 번아웃 경험률이 7.6%p 더 높고, 연령대별로는 25~29세가 34.8%로 가장 높음

< 번아웃 경험률 (2022, 2024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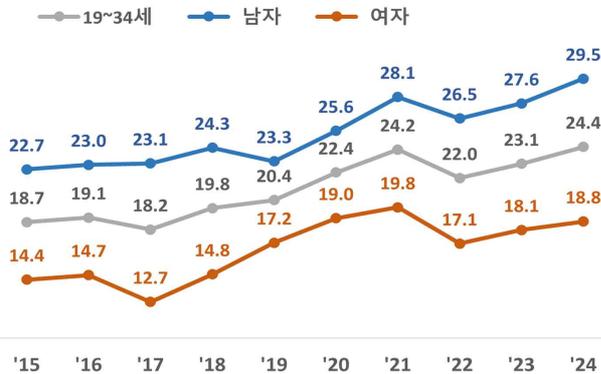
< 성·연령별 번아웃 경험률 (2024) >



주: 최근 1년 동안 업무, 학업, 취업준비 등으로 스스로 번아웃되었음을 느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
출처: 국무조정실 「청년삶실태조사」

- 청년(19~34세) 자살률은 '24년 10만 명당 24.4명으로 전년대비 1.3명 증가(보고서 34쪽)
- (성별) 남자는 '24년 10만 명당 29.5명으로 여자(18.8명)보다 높은 수준임
- 지난 10년간('15년 → '24년) 자살률은 19~24세는 5.3명 증가(12.4명 → 17.7명)했으며, 25~29세는 6.6명(19.9명 → 26.5명), 30~34세는 3.8명(24.7명 → 28.5명) 증가함

< 성별 자살률 (2015~2024) >



< 연령별 자살률 (2015~2024) >

(단위: 명/10만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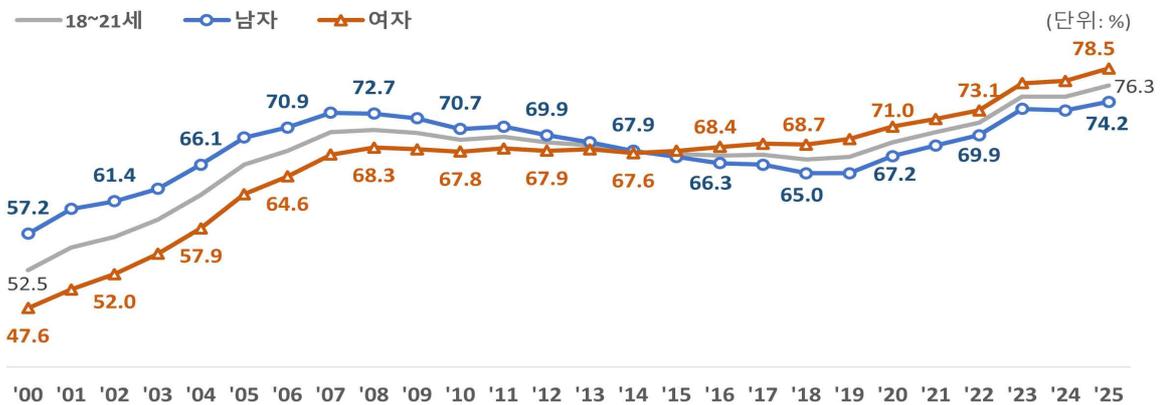
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사망원인통계」 (원자료)

### 3. 교육

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'25년 76.3%,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'24년 48.0%임

- 18~21세 중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은 '00년 52.5%에서 증가 추세이며, '25년에는 76.3%로 전년(74.9%) 대비 1.4%p 증가함(보고서 37쪽)
-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'00년 남자(57.2%)가 여자(47.6%)보다 9.6%p 더 높았으나, '15년부터 역전되어 '25년에는 여자(78.5%)가 남자(74.2%)보다 4.3%p 더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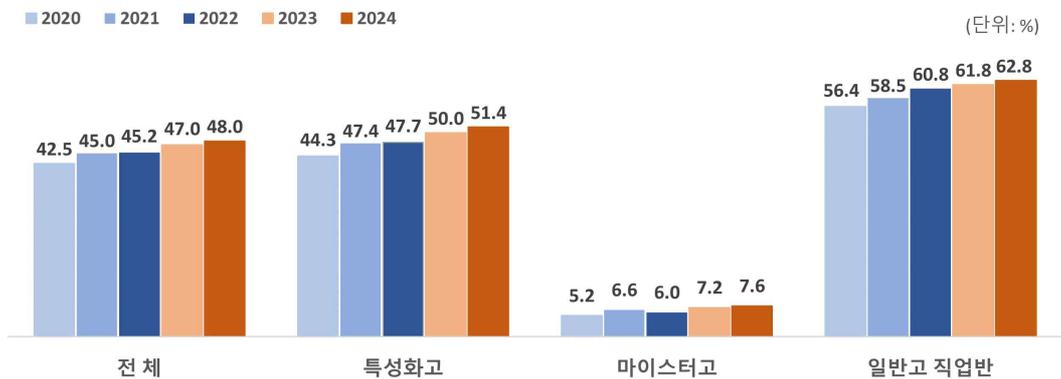
<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(2000~2025) >



주: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 및 대학원, 전문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각종 학교 등이 포함됨  
출처: 한국교육개발원, 「교육통계분석자료집」

-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'24년 48.0%로 '20년 42.5%에서 증가 추세임(보고서 39쪽)
- 일반고 직업반 졸업생의 진학률이 '24년 62.8%로 가장 높고, 특성화고 51.4%, 마이스터고 7.6%순으로 모든 유형에서 증가

< 직업계고 졸업생 진학률 (2020~2024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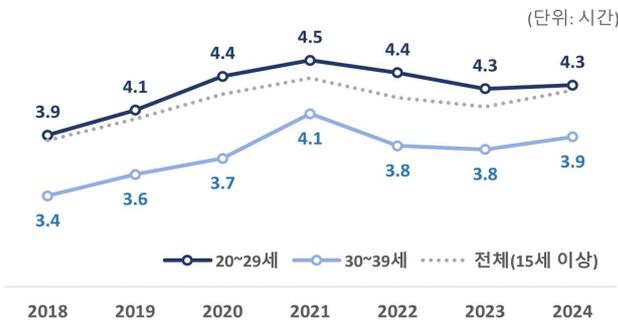
주: 진학률 = (진학자 ÷ 졸업자) × 100  
출처: 한국교육개발원, 「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」

## 4. 여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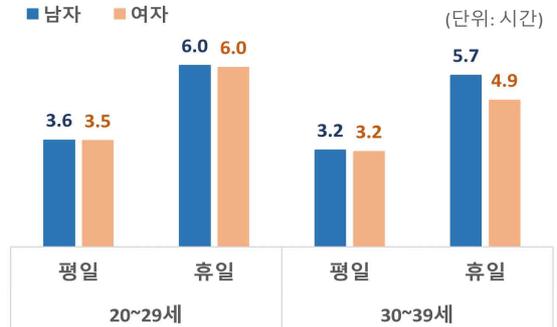
30대 여성의 휴일 여가시간은 남자보다 0.8시간 짧고, 여가생활 만족도도 낮음

- '24년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0대 4.3시간, 30대 3.9시간이며, 코로나19 시기인 '21년(20대 4.5시간, 30대 4.1시간) 이후 감소 추세임(보고서 43쪽)
- '23년 20대의 남녀 여가시간은 평일 3.5~3.6시간, 휴일 6.0시간으로 비슷한 수준임
- 30대의 경우 평일 여가시간은 남녀가 비슷하나, 휴일은 남자 5.7시간, 여자 4.9시간으로 여성의 여가시간이 0.8시간 정도 더 짧음

< 여가시간 (2018~2024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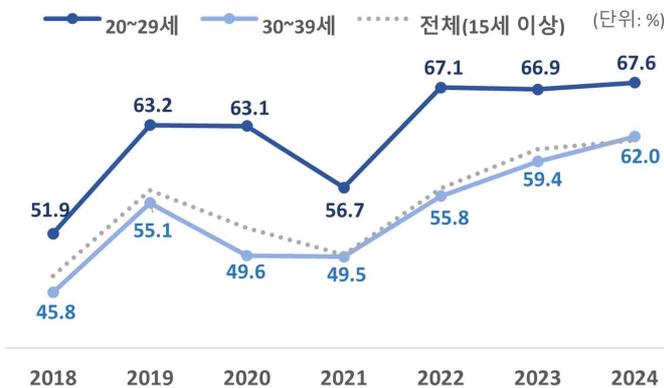
< 성·연령별 여가시간 (2023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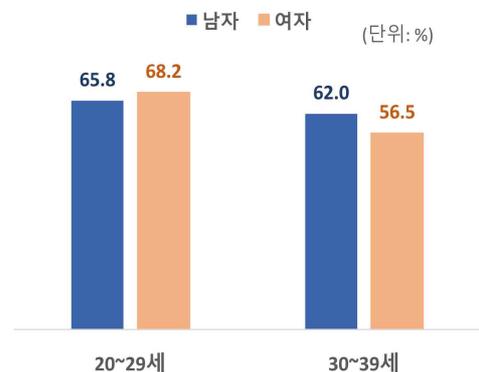
주: 하루평균 여가시간 = {(평일 여가시간 × 5) + (휴일 여가시간 × 2)} ÷ 7  
출처: 문화체육관광부, 「국민여가활동조사」

- '24년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20대 67.6%, 30대 62.0% 임(보고서 46쪽)
- 여가생활 만족도는 20대(67.6%)가 30대(62.0%)에 비해 5.6%p 더 높으며, 30대의 만족도는 최근 증가 추세('22년 55.8% → '24년 62.0%)
- '23년 30대 여성의 만족도는 56.5%로 30대 남자(62.0%)에 비해 5.5%p 낮음

< 여가생활 만족도 (2018~2024) >



< 성·연령별 여가생활 만족도 (2023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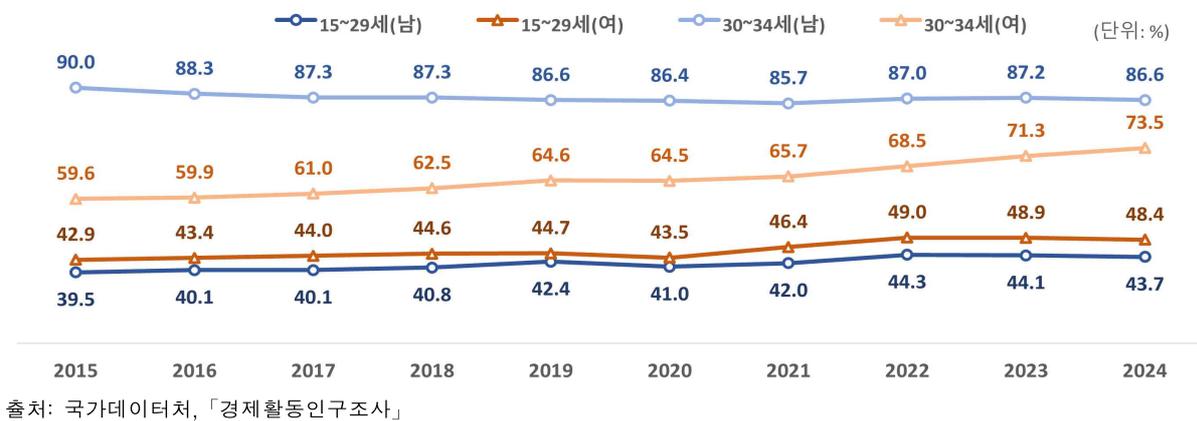
주: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는지(7점 척도)에 대해 '만족한다(5~7점)'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
출처: 문화체육관광부, 「국민여가활동조사」

## 5. 고용·임금

30~34세 여자 고용률은 73.5%로 남자보다 13.1%p 낮으나, 성별 격차는 감소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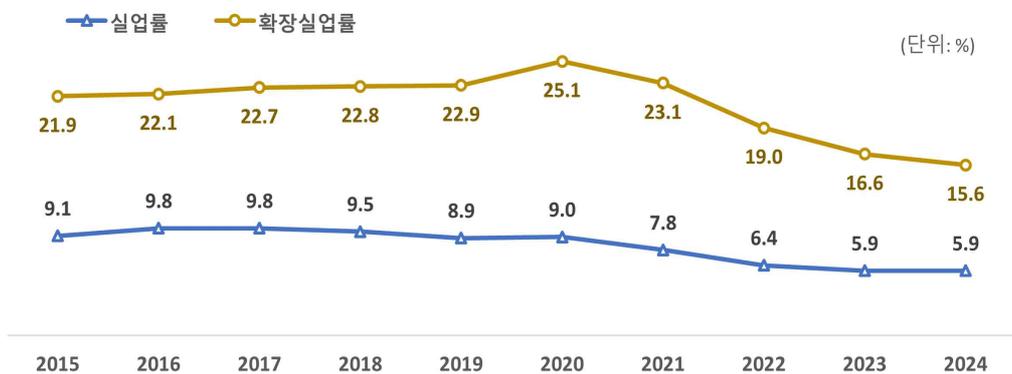
- '24년 15~29세 고용률은 남자 43.7%, 여자 48.4%로 여자가 4.7%p 높으며, 30~34세 고용률은 남자 86.6%, 여자 73.5%로 남자가 13.1%p 높음(보고서 51쪽)
- (30~34세) 여자 고용률은 증가(59.6%<sup>'15년</sup> → 73.5%<sup>'24년</sup>), 남자 고용률은 감소(90.0%<sup>'15년</sup> → 86.6%<sup>'24년</sup>), 성별 격차는 30.4%p에서 13.1%p로 감소

< 성·연령별 고용률 (2015~2024) >



- '24년 15~29세의 실업률은 5.9%로 '20년 9.0%에서 '21년 7.8%, '22년 6.4%, '23년 5.9%로 감소 추세임(보고서 53쪽)
- 넓은 범위에서의 구직의사를 반영한 확장실업률은 '24년 15.6%로 '20년 (25.1%) 이후 감소 추세이며, 공식실업률과는 약 9.7%p의 차이를 보임
- \* 확장실업률(고용보조지표3) :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, 조사대상주간 취업 불가능한 자, 비구직활동자 중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포함하는 비율

< 15~29세 실업률과 확장실업률 (2015~2024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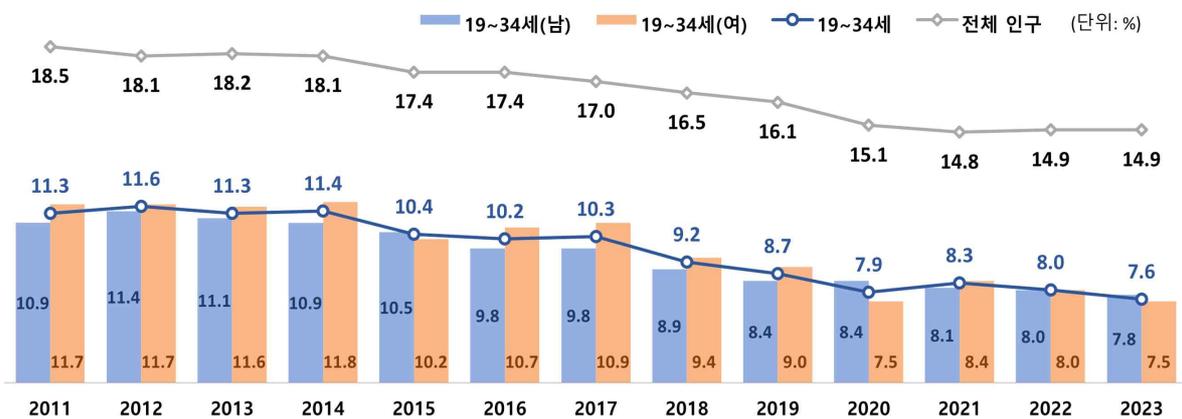
주: 확장실업률 = {(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+실업자+잠재경제활동인구) ÷ 확장경제활동인구} × 100  
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

## 6. 소득·소비·자산

19~34세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'23년 7.6%로 전체 인구(14.9%)보다 낮음

- 청년층(19~34세) 상대적 빈곤율은 '11년 11.3%에서 '18년 10% 미만으로 하락하였고, 코로나19 시기 소폭 증가하였으나 '23년 7.6%로 감소 추세임(보고서 63쪽)
- (성별) '23년 기준 남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7.8%로 여자(7.5%)보다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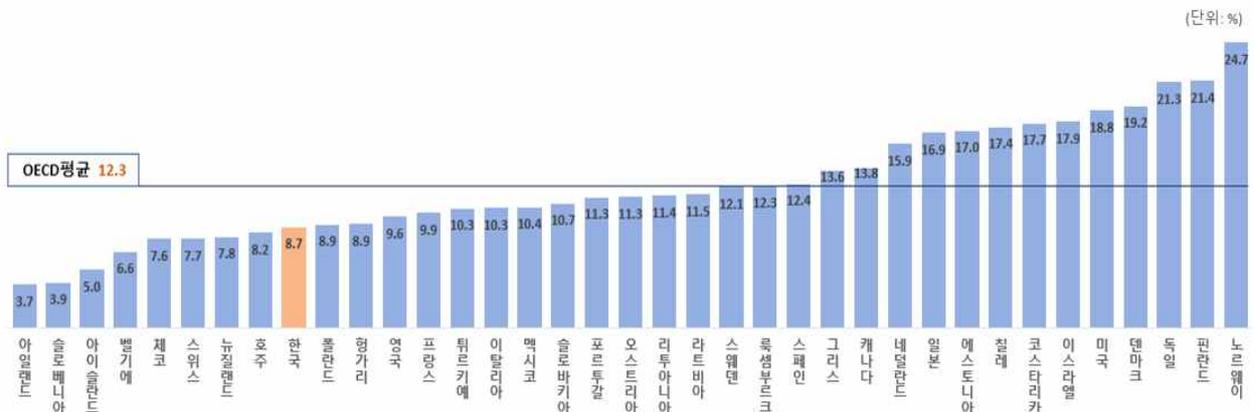
< 상대적 빈곤율 (2011~2023) >



주: 처분가능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개인 단위 중위값의 50%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의 비율  
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가계금융복지조사」(원자료)

- 우리나라 청년(18~25세)의 상대적 빈곤율은 '22년 8.7%로 OECD 국가 중 9번째로 낮고, OECD 국가 평균(12.3%)보다 3.6%p 낮음(보고서 64쪽)

< OECD 국가 18~25세 상대적 빈곤율 (2022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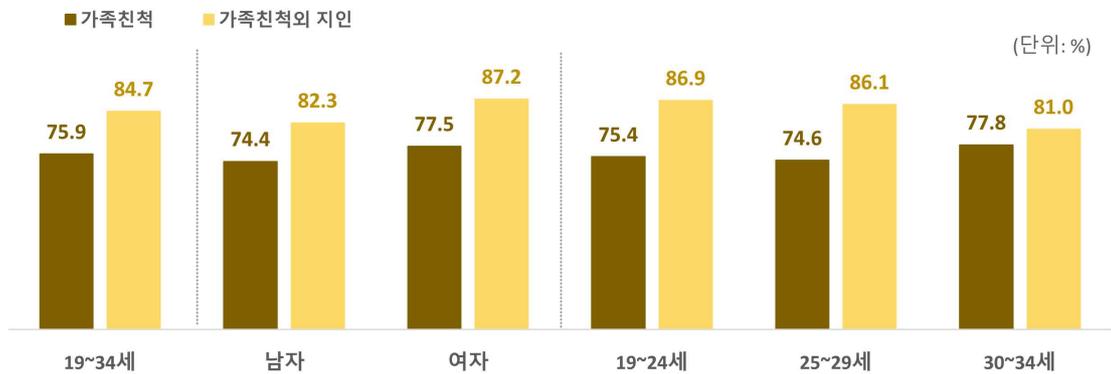
주: 1) 18~25세 대상 상대적 빈곤율임  
2) 아이슬란드는 2017년, 호주는 2020년, 일본과 독일은 2021년도 수치임  
3) OECD 평균은 그래프에 제시된 37개국의 상대적 빈곤율을 평균한 값임  
출처: OECD, Income Distribution Database.

## 7. 가족·공동체

사회적 교류 비율은 '23년 가족친척 75.9%, 가족친척 외 지인이 84.7%이며, 외로움 경험률은 '24년 19~29세 12.7%, 30~39세 13.0%임

- '23년 청년(19~34세)의 사회적 교류 비율은 가족·친척 75.9%, 가족·친척 외 지인 84.7%로 가족·친척보다 지인과의 교류가 8.8%p 더 높음(보고서 69쪽)
- (성별) 사회적 교류 비율은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아, 가족·친척은 남자 74.4%, 여자 77.5%이고, 지인은 남자 82.3% 여자 87.2%임
- (연령)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·친척과의 교류가 높아지고(19~24세 75.4%, 30~34세 77.8%), 지인과의 교류는 낮아짐(19~24세 86.9%, 30~34세 81.0%)

< 사회적 교류 비율 (2023) >



주: 평소에 가족·친척, 가족·친척 외 지인과 교류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
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사회조사」(원자료)

- '24년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~29세 12.7%, 30~39세 13.0%로 19세 이상의 외로움 경험률(21.0%)보다 낮은 수준임(보고서 76쪽)
- 청년층(19~39세) 외로움 경험률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, 전체인구보다 낮은 수준임

< 외로움 경험률 (2013~2024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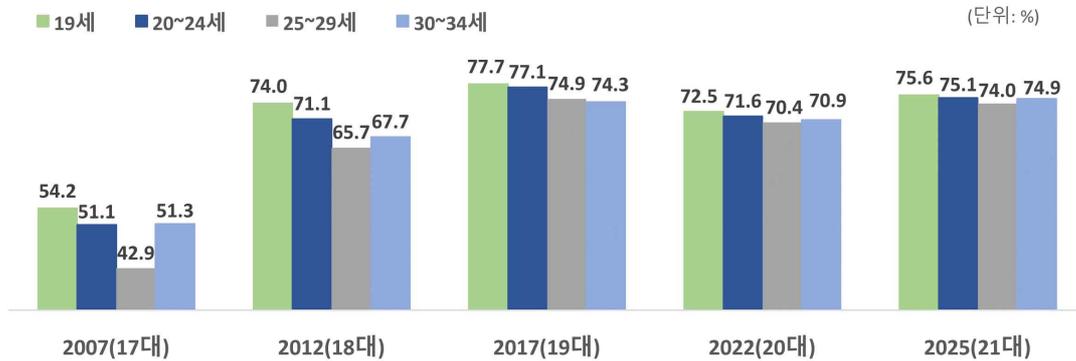
주: '나는 외롭다'에 대한 질문(4점 척도)에 '그렇다' 또는 '매우 그렇다'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
출처: 한국행정연구원, 「사회통합실태조사」

## 8. 시민참여

투표율은 '25년 75% 내외이나,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 참여율은 낮은 수준임

- 청년(19~34세)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'07년 54%이하였으나, '12년에 16~22%p 가량 증가하였고, '25년에는 모든 청년 연령집단에서 75% 내외임(보고서 77쪽)
  - 19세 투표율은 '17년 77.7%, '25년 75.6%로 청년층 중 가장 높음
  - 25~29세 투표율은 '07년 42.9%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상승하여 '25년에는 74.0%로 다른 청년층과 비슷한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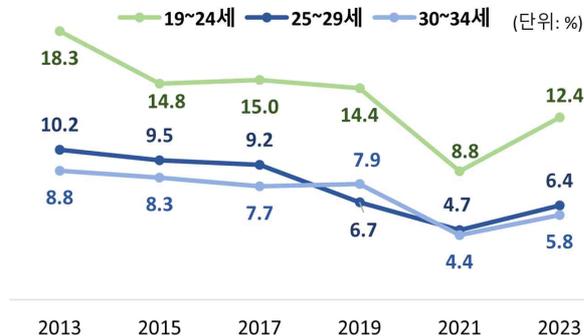
< 대통령선거 투표율 (2007~2025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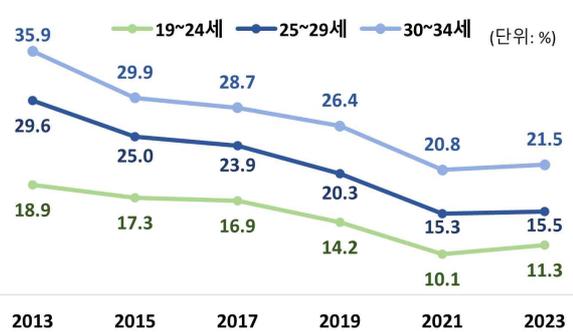
출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「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」

- '23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19~24세는 12.4%인 반면, 25~29세와 30~34세는 각각 6.4%, 5.8%로 19~24세의 절반 수준임(보고서 79쪽)
  - 기부 참여율은 30~34세가 21.5%로 가장 높고, 25~29세 15.5%, 19~24세 11.3%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참여율을 보임(보고서 80쪽)

< 자원봉사 참여율 (2013~2023) >



< 기부 참여율 (2013~2023) >



주: 자원봉사 참여율(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), 기부 참여율(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비율)  
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사회조사」(원자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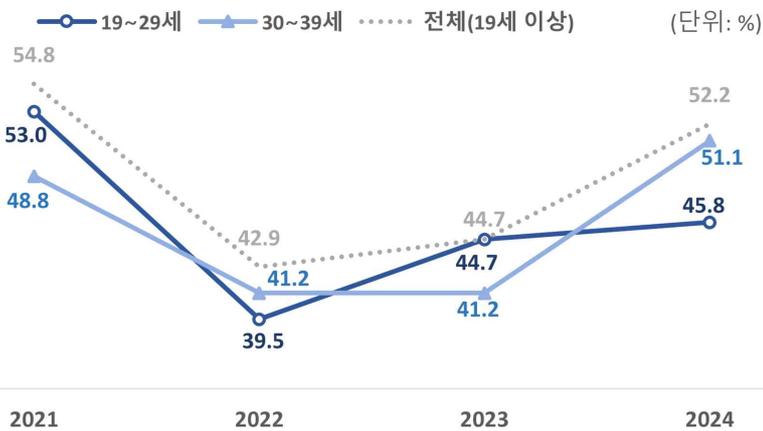
## 9. 신뢰·공정

청년층의 절반 정도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 
차별 경험률(성·고용형태)은 '20년 12~25%에서 '24년 5% 내외로 감소 추세임

□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은 '24년 기준 19~29세는 45.8%, 30~39세는 51.1%로  
청년의 절반 정도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함(보고서 85쪽)

○ 19세 이상 전체 인구(52.2%)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'22년 이후 증가 추세임

< 공정성 인식 (2021~2024) >



주: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(4점 척도)에 대해 '약간 공정하다' 또는 '매우  
공정하다'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
출처: 한국행정연구원 「사회통합실태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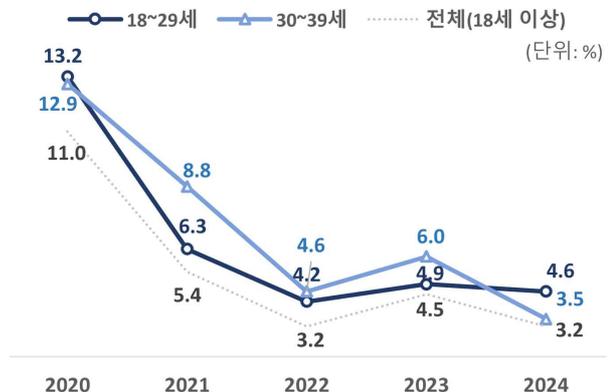
□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률은 '24년 18~29세 6.6%, 30~39세 5.4%로 전체  
인구(18세 이상, 4.5%)에 비해 높으나, '20년 이후 감소 추세임(보고서 87쪽)

○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경험률은 '24년 18~29세 4.6%, 30~39세 3.5%임

<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률 (2020~2024) >



<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경험률 (2020~2024) >



주: 지난 1년 동안 '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', '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'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
출처: 국가인권위원회, 「인권의식실태조사」

## 10. 주거

'24년 주택 이외 거처 비율은 수도권이 5.7%로 비수도권(4.8%)보다 높고, 타 시도로의 이사 의향은 비수도권 지역이 28.2%로 수도권(21.1%)보다 높음

- 청년가구(19~34세 가구주)의 주택 이외 거처 비율은 '24년 5.3%로 일반가구(2.2%)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, '23년 4.0%에서 1.3%p 증가함(보고서 92쪽)
- (지역별) '24년 수도권은 5.7%, 비수도권은 4.8%로 수도권의 주택 이외 거처 비율이 더 높으며, 전년 대비 비수도권의 증가폭(2.8%p)이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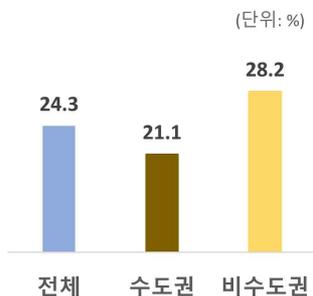
< 주택 이외의 거처 (2018~2024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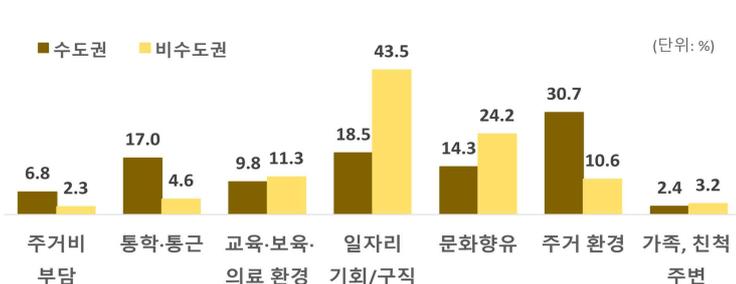
주: 주택 이외 거처는 고시원, 고시텔, 숙박업소, 판잣집,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하며, 오피스텔 및 집단거주시설은 제외  
출처: 국토교통부, 「주거실태조사」

- 청년(19~34세)의 타 시도로의 이사 의향은 '24년 24.3%이며,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이사 의향은 28.2%로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거주 청년(21.1%)보다 높음(보고서 96쪽)
- 타 시도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로 수도권은 주거환경(30.7%), 일자리(18.5%), 통학·통근(17.0%)이, 비수도권은 일자리(43.5%), 문화향유(24.4%)가 높음

< 타 시도 이사 의향 (2024) >



< 타 시도 이사 의향 이유 (2024) >



주: 현재 거주지에서 타시도로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 및 타시도로 이사하고 싶은 주된 이유(기타 0.3%는 제외)  
출처: 국무조정실, 「청년삶실태조사」

# 11. 안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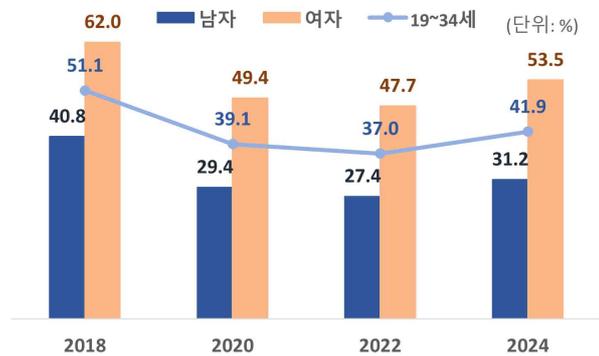
야간보행 불안 인식은 '24년 여자 49.4%로 남자(11.8%)보다 37.6%p 높으며, 교제폭력 입건 건수는 '23년 13,939건으로 전년 대비 1,111건 증가함

- 청년의 야간보행 불안 인식은 '24년 29.8%로 '20년 34.9%에서 감소하였으며, 여자의 야간보행 불안 인식은 49.4%로 남자(11.8%)보다 37.6%p 높음(보고서 99쪽)
- 범칙에 대한 불안 인식은 '24년 41.9%로 '22년(37.0%)보다 증가하였으며, 여자의 범칙 불안 인식은 53.5%로 남자(31.2%)보다 22.3%p 높음

< 야간보행 불안 인식 (2020~2024) >



< 범칙 불안 인식 (2018~2024) >



주: 1) 야간보행 불안 인식: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'약간 불안' 또는 '매우 불안'이라고 응답한 비율  
 2) 범칙 불안 인식: 범칙로부터 안전한 정도에 대해 '약간 불안' 또는 '매우 불안'이라고 응답한 비율  
 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사회조사」 (원자료)

- 교제폭력 입건 건수는 '20년 이후 증가 추세로 '23년 13,939건임(보고서 103쪽)
- 스토킹처벌법 검거 건수는 '23년 11,601건으로 전년 대비 1,706건 증가함

< 교제폭력 입건 건수 및 스토킹처벌법 검거 건수 (2018~2023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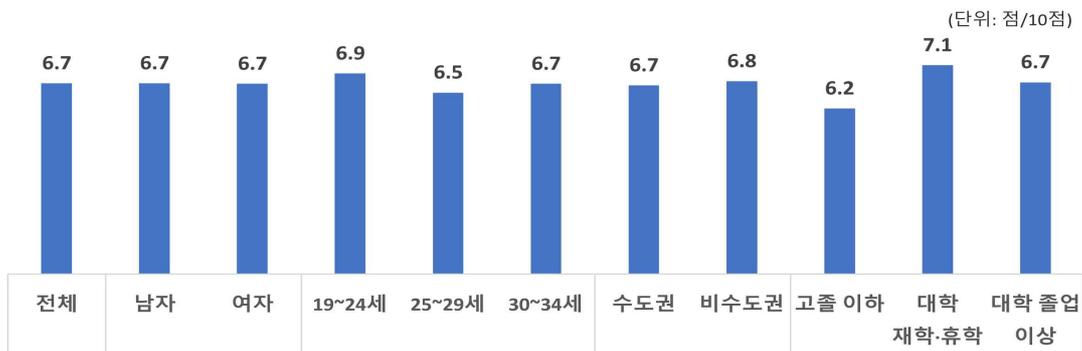
주: 1)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집계한 값임  
 2)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  
 출처: 경찰청, 「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」; 경찰청, 「범죄통계」

## 12. 주관적 웰빙

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'24년 6.7점이며, 대학(휴학생이 7.1점으로 가장 높음

- '24년 청년층(19~34세) 삶의 만족도는 6.7점이며, 19~24세는 6.9점으로 25~34세보다 높고, 비수도권에서 6.8점으로 수도권(6.7점)보다 높음(보고서 107쪽)
-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학 재학 및 휴학인 경우 7.1점으로 가장 높으며, 고졸 이하에서 6.2점으로 낮은 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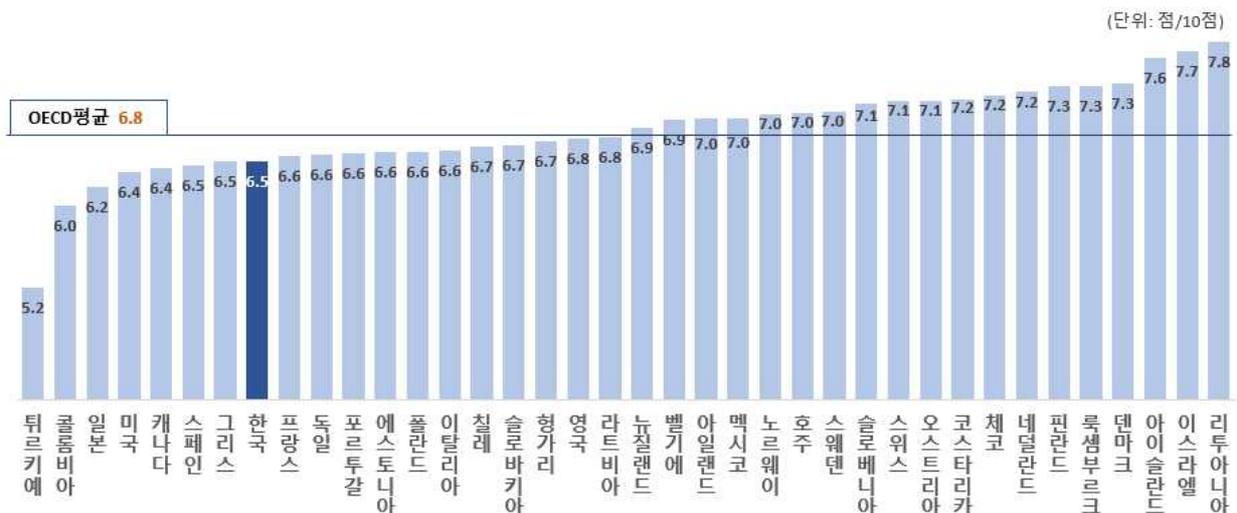
< 삶의 만족도 (2024) >



주: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~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  
출처: 국무조정실, 「청년삶실태조사」

- 우리나라 청년(15~29세)의 삶의 만족도(6.5점)는 OECD 국가 중 31위이며, OECD 평균(6.8점)보다 0.3점 낮음(보고서 108쪽)

< OECD 국가 15~29세 삶의 만족도 (2021~2023년 평균) >



주: 1) 갤럽월드폴 2021~2023년 조사결과로 15~29세의 삶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0~10점 척도 평균점수임  
2) OECD 평균은 그래프에 제시된 38개국의 삶의 만족도를 평균한 값임  
출처: SDSN, 「World Happiness Report 2024」

## < 이슈분석 >

### 1) 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웰빙: OECD 사회적 연결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(보고서 114쪽)

(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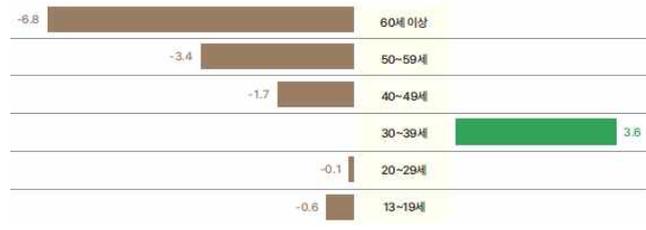
- 본 연구는 OECD의 사회적 연결성 프레임워크(구조, 기능, 질)를 기반으로 청년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, 시사점을 도출한다.
- (구조) 코로나19 이후 가족·친척 외 지인과 교류가 없는 사람의 비율은 40대 이하에서 증가했으며, 여가를 '혼자서'하는 비율은 30대에서 증가하였다.

< 지인과 교류가 없는 비율 변화 >



주: '19년 대비 '23년의 비율 변화(%p)  
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사회조사」

<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비율 변화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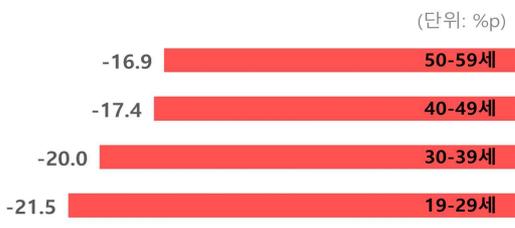
주: '15년 대비 '23년의 비율 변화(%p)  
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사회조사」

- (기능) 사회적 관계를 통한 안전망이 약화하는 경향을 보인다. 특히 '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고 느끼는 청년 비율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증가하여, 심리·정서적 충격으로부터의 완충재가 약화된 것으로 파악된다.

\* '23년 이야기 상대 없음('15년 대비 증감): 19~29세 14.4%(+3.2%p), 30~39세 17.2%(+3.7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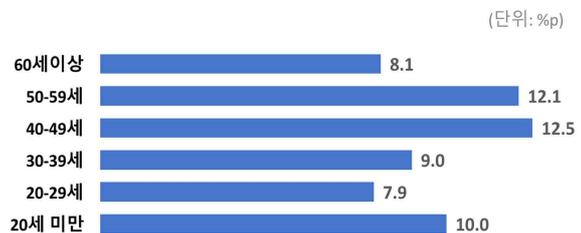
- (질) 청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아졌으나, 대인신뢰도는 하락하였다. '14년 대비 '24년 청년층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, 대인신뢰도는 하락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.

< 대인신뢰도 비율 변화('14년 대비 '24년)>



출처: 한국행정연구원, 「사회통합실태조사」

< 가족관계 만족 비율 변화 ('14년 대비 '24년)>



출처: 국가데이터처, 「사회조사」

- (시사점) 청년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의 증대,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.

## 2) 청년의 주관적 웰빙과 사회통합: 시민참여와 포용성을 중심으로(보고서 134쪽)

(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)

-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통합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「청년삶실태조사」를 활용하여 청년층 주관적 웰빙과 시민참여 및 포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.
- 청년<sup>19~34세</sup>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'22년 6.72점, '24년 6.71점으로 유사하며, 어제의 행복 정도를 질문한 긍정정서는 '22년 6.89점에 비해 '24년 6.80점으로 낮아졌다.
- 미래 실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'24년 7.62%로 '22년(5.23%) 대비 증가하였다. 남자(8.27%)가 여자(6.91%)보다 높고,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30~34세는 9.42%로 연령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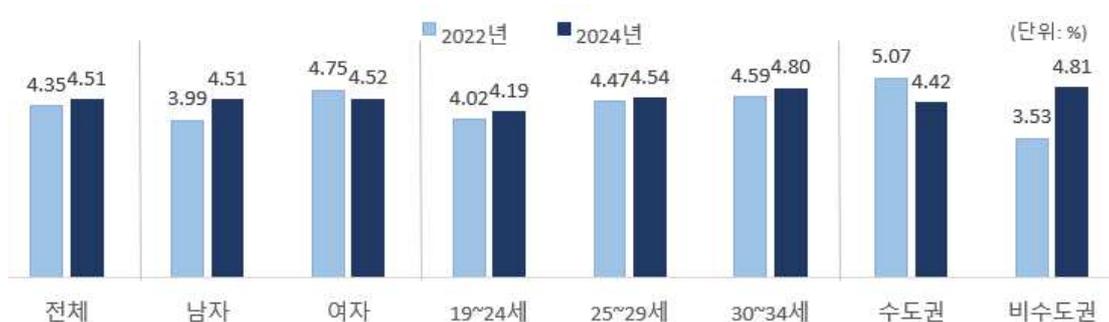
< 미래 실현 정도에 대한 부정 인식 (2022, 2024) >



주: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'전혀 실현할 수 없다'고 응답한 비율  
출처: 국무조정실, 「청년삶실태조사」

- 청년의 시민참여(정치 및 사회 관련 기부 혹은 자원봉사) 경험 비율은 '24년 4.51%로 낮은 수준이며, 30~34세에서 4.80%로 상대적으로 높다. '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'로 측정된 포용성은 '22년(3.14점) 대비 '24년(3.04점) 소폭 감소하였다.

< 시민참여: 정치 및 사회현안 관련 기부 또는 자원봉사 참여 비율 (2022, 2024) >



주: 지난 1년 동안 '정치 및 사회현안 대응을 위한 단체나 활동에 기부 또는 자원봉사'를 1-2번 또는 3번 이상 한 사람 비율  
출처: 국무조정실, 「청년삶실태조사」

- (시사점)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.